

희망의 여정인 평화: 대화와 화해와 생태적 회심

1 장애와 시련에 맞서는 희망의 여정인 평화

평화는 소중한 선(善)입니다. 평화는 우리 희망의 대상이고 온 인류 가족의 열망입니다. 평화를 향한 희망은 실존적 긴장을 특징으로 하는 인간의 자세입니다. 이러한 실존적 긴장 덕분에,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현재라면, 그리고 이 목표를 확신할 수 있다면, 또한 이 목표가 힘든 여정을 정당화 할 수 있을 만큼 위대한 것이라면,” 우리는 온갖 어려움 안에서도 현재를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희망은, 극복할 수 없어 보이는 장애들이 있을 때조차도 우리가 여정을 시작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해 주는 덕목입니다.

우리 인간 공동체는 기억으로든 실재로든 전쟁과 분쟁이 남긴 상흔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점점 더 큰 파괴력을 지니는 전쟁과 분쟁은 특히 가난한 이들과 힘없는 이들에게 끊임없는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증오와 폭력을 조장하는 착취와 부정부패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수많은 이들의 존엄성, 신체적 온전성,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자유, 공동체 연대, 미래에 대한 희망이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고한 희생자들은 모욕과 배척, 슬픔과 불의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 민족과 그들이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구조적 적개심에서 비롯되는 정신적 상처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국내의 분쟁의 참상은 흔히 무자비한 폭력으로 증폭되고 인간의 육체와 정신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전쟁은 인류 가족의 사망으로 새겨진 형제애를 파괴하는 일종의 형제 살해입니다. 흔히 전쟁은 타인의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관용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관용이 소유욕과 지배욕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이기심, 교만, 증오에서 비롯됩니다. 그러한 인간의 마음은 파괴로 이끌며, 타인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고 그들을 배척하며 없애버리도록 몰아갑니다. 전쟁은 관계의 왜곡, 패권 장악의 야망, 권력 남용, 타인에 대한 두려움, 다양성을 장애물로 보는 시각으로 부추겨지며, 동시에 이 모든 것을 악화시키는 것도 전쟁입니다. 최근 저의 일본 방문에서 강조했듯이, 역설적이게도 “이 세상은 공포심과 불신으로 지탱되는 거짓 안보에 바탕을 두면서 안정과 평화를 수호하고 보장하려 하는 사악한 이분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민족들 사이의 관계를 해치고 모든 대화의 가능성을 가로막아 버립니다. 평화와 국제적 안정은 상호 파괴에 대한 공포나 전멸의 위협에 기반한 그 어떤 시도와도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평화와 국제적 안정은 미래에 봉사하는 연대와 협력의 세계 윤리에서 시작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미래는 오늘과 내일의 온 인류 가족이 상호 의존과 공동 책임으로 일구어 가는 것입니다.” 모든 위협적인 상황은 불신을 키우고, 자기만의 안전한 곳을 찾아 움츠러들도록 부추깁니다. 불신과 공포는 관계를 악화시키고 폭력의 위험을 증대시키면서, 결코 평화의 관계로 이끌 수 없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핵 억제도 신기루 같은 안보만 만들어낼 따름입니다. 따라서 전멸의 공포를 통한 세계 안정의 유지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핵의 구렁텅이로 이어지는 벼랑 끝에 매달려 있고 무관심의 장벽에 갇혀 있는 지극히 불안정한 평형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인간과 피조물이 서로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버림을 받는 비극적 상황들을 불러오는 사회 경제적 결정들이 내려 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평화와 상호 존중의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위협과 공포의 병든 논리를 어떻게 깨뜨릴 수 있습니까? 현재 만연

하고 있는 불신의 힘을 어떻게 타파할 수 있습니까? 하느님께 공동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는, 이 공동의 기원에 기초하고 대화와 상호 신뢰로 이루어지는 참형제애를 추구해야 합니다. 평화를 향한 갈망은 인간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갈망을 채울 때까지는 만족한 채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2 지역과 연대와 형제애에 기초한 경청의 여정인 평화

히바쿠사(Hibakusha), 곧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 생존자들은 오늘날 집단 양심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히바쿠사들은 다음 세대들에게 1945년 8월에 일어난 그 사건의 참상과 지금까지 이어지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그들의 증언은 희생자들에 대한 기억을 일깨우고 보전하여 인류의 양심이 온갖 지배욕과 파괴욕에 더욱 강력히 맞설 수 있게 합니다. “현재와 미래 세대들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잊지 않게 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기억이 더욱 공정하고 형제애 넘치는 미래를 보장하고 증진합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은 히바쿠사들처럼, 미래 세대가 과거 사건을 잊지 않게 하려고 기억의 지킴이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와 같은 과오가 재발되거나 과거에 사람들을 현혹시킨 계략들이 다시는 생겨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경험의 열매인 기억이 평화 증진을 위한 현재와 미래의 결정들에 밑바탕이 되고 영감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더욱이, 기억은 희망이 펼쳐지는 지평입니다. 전쟁과 분쟁의 어둠 속에서도 연대의 작은 몸짓을 체휼했을 때, 이에 대한 기억이 용기 있고 영웅적이기도 한 결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억은 개인과 공동체 안에 새로운 활력을 북돋우고 새로운 희망을 불타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도전 과제입니다. 사람들, 공동체들, 국가들 사이의 수많은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람들의 도덕적 양심에 그리고 개인적 정치적 의지에 호소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평화는 인간의 마음 깊숙이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정치적 의지는 언제나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개인과 공동체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새로운 길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공허한 말이 아니라 확신에 찬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곧, 배척이나 조작 없이 대화에 열려 있는 평화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서로 다른 견해와 이념을 뛰어넘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사이에 확신에 찬 대화 없이는, 참평화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평화는 “언제나 꾸준히 이룩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평화는, 우리가 언제나 공동선을 추구하고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며 법을 존중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상호 경청은 상호 이해와 존중으로 이끌 수 있고, 심지어 원수에게서 형제자매의 얼굴을 알아보게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평화의 여정은 지속적인 투신을 요구합니다. 평화의 여정은,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고, 희생자들을 기억하며, 복수심보다 훨씬 강한 공동의 희망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길은 여는 인고의 노력입니다. 법치국가에서, 민주주의는 이 평화 여정의 중요한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민주주의는 정의에 바탕을 두고, 각 개인의 권리, 특히 힘없고 소외받는 이들의 권리를 수호하고자 노력하며, 계속 진리를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지역과 국가와 전 세계 공동체의 모든 차원에서, 각 개인이 책임감 있는 기여를 하는 사회를 건설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오로 6세 성인께서 강조하신 대로, “평등과 참여의 소망